

濯纓의 管處士墓誌銘 小考

曹 壽 鶴

〈 목 차 〉

- | | |
|-----------------------------------|-----------|
| I. 緒 言 | III. 作品分析 |
| II. 作者의 生涯, 師友, 學問, 時代
및 文集 概觀 | IV. 結 言 |

I. 緒 言

1939년 金台俊이 《朝鮮小說史》에서 〈花史〉¹⁾의 장르 규정을 ‘假史’로 분명히 정리하지 못하고, 다만 그 필법이 고려 후기의 假傳과 같다는 뜻에서 이를 ‘假傳體 小說의 集大成’²⁾이라고 정리한 이래, 國學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감각스럽게 필요로 하는 국어국문학 강의의 수요를 충족시키느라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한 나머지, 엄연한 고려 후기의 假傳이 ‘假傳體’로 不正回歸³⁾하였다가 1972년 이후에야 다시 假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⁴⁾

그러나 아직 사물의 傳이 가전인 줄은 알아도 사물의 誌인 〈愁城誌〉가 假誌인 줄, 〈花史〉가 假史인 줄, 〈규중칠우 쟁론기〉가 假記인 줄, 〈제침문〉이

1) 金台俊:《朝鮮小說史》, 學藝社 발행, 1939, 7. pp72-78.

2) 金台俊: 위의 책, p. 74.

3) 趙潤濟:《국문학사》, 朴晨義:《한국고대소설사》, 申基亨:《한국소설발달사》 등등.

4) 조수학:〈가전분학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72. 안병설:〈한국가전문학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1974. 등등.

假祭文인 줄, 기타 假書, 假語, 假說, 假序, 假頌, 假墓誌銘 등등, 실문에 대한 대칭적 개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가 드물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들을 일컬어 假文이라 論證한 바 있으나⁵⁾ 아직 보편화 되기는 遙遠한 듯 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漢文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純粹한 文藝文인 濯纓 金駟孫의 〈管處士 墓誌銘〉을 고찰함으로써, 이 글이 100여종이 넘는 漢文의 實用文 가운데, 이제 겨우 10여종 밖에 발견되지 않은 假文의 일종으로 假墓誌銘임을 밝히고, 또한 작품이 지어진 동기와 아울러 이 글이 중국 당나라 韓愈의 〈毛穎傳〉 이래, 옛선비들이 친숙하게 애용하던 文房四友에 관한 가문들을 集大成한 작품임을 입증코자 한다.

II. 作者의 生涯, 師友, 學問, 時代 및 文集 概觀

1. 生涯

조선 세조 10년(1464) 1, 7일 현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서원동(당시, 慶尙道 淸道郡 上北面 雲溪里)에서 출생. 아버지 金孟(호: 南溪)은 司憲府 執義를 지냈고, 어머니는 龍仁 李씨 讓의 따님, 사이의 셋째이며, 伯씨는 駿孫(호: 東窓), 仲씨는 驥孫(호: 梅軒)이며, 할아버지는 節孝先生으로 私諡된 金克一이다.

8세에 〈小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7세에 당시 밀양에서 廬墓 살이 하던 金宗直에게서 事師하면서부터 밀접한 師弟 관계를 맺게 되었다. 18세에 김종직 선생으로부터 韓退之의 문장을 배웠는데, 선생께서 이르기를 “그대가 詩와 문장에 있어서 無所不能하니 나의 衣鉢을 전수할 자 그대를 말고 누가 있으랴? 뒷날에 文柄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 가리라. 조정의 上文급은 반드시 《昌黎集》을 많이 읽는다고 하였다. 이에 기꺼이 韓文

5) 拙稿: 〈假文論證〉 《영남어문학》 제16집, 1989. 9.

을 읽는데 손은 책펴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입은 글외우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반드시 천번 이상을 읽으니, 뒷날 문장이 크게 진척했다. 이 해 7월에 南孝溫과 神交를 맺었으며, 8월에는 原州 酒泉山에 있는 元昊를 찾아가서 두 밤을 지내고 돌아왔다.

그 뒤 23세(1486)에 生員試 제 1명, 進士試 제 2명을 거쳐, 같은 해에 式年文科 甲科 제 2명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10년 남짓 계속한 선생의 宦歷은 承文院 權知副正字로부터 시작하여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 등 言官職과 承政院, 吏曹, 兵曹의 郎官 등, 淸職과 要職을 두루 기쳤으며, 兼職으로 知製教, 藝文館職, 春秋館職, 經筵職, 書筵職 등 매우 화려하였다. 이와 같은 출세에 대하여 선생 자신도 염려하였음인지……吏曹 佐郎을 사임하고 賜暇讀書를 청하는 글에서

少年登科가 한가지 불행이란 말이 臣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에 40세가 되어 요직을 맡는 까닭은 道와 德이 成立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臣은 나이 30이 못되어 화려한 요직을 역임하여, 翰苑, 玉署, 史官, 銓郎 등 세상에서 일컫는 淸選을 다 견하였으니,……화와 복은 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불러드리는 것이라, 人殃이 없으면 天刑이 내릴 것입니다.⁶⁾

라 하여 이는 마치 戊午史禍를 예견한 듯하다. 선생 27세 성종 21년(1490)년 3월에 入直史館이 되어 史草를 닦을 때, 김종직 선생의 “弔義帝文”을 史草에 실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은 公知의 사실이다.

급거야 선생 35세(1498), 연산군 4년 戊午史禍를 입은 선생은 그 후 1506년 中宗反正後에 伸冤이 되고, 동왕 7년에 弘文館 直提學이 贈職되었으며, 顯宗 1년(1660)에 都承旨, 純祖 30년(1830)에는 吏曹判書가 증직되었다. 그리고 顯宗 2년(1661)에 淸道 紫溪書院에 祭享되고, 숙종 2년(1676)에 木川(현풍)의 道東書院에 賜額되고, 純祖 34년(1834)에야 마침내 文愍이

6) 《灌纓集》 六一〈辭吏曹佐郎請賜暇讀書疏〉: 少年登科一不幸 臣之謂也 古者四十強仕 所以待道成德立然後就仕 今臣年未三十 歷敦華要 翰苑, 玉署, 史官, 銓郎 廿云淸選 而臣兼之. 禍福無門 惟人所召 不有人殃 必有天刑.

란 諡號가 내려졌다. 趙寅永이 지은 諡狀에는 “博聞多見曰文 使民悲傷曰愍”⁷⁾라고 하여 선생의 해박한 지식과 被禍의 슬픔을 여실히 나타내었다.

그의 관직 생활중에 올린 上疏 중에는 昭陵의 復位 및 魯山君 立後를 청한 상소가 가장 激切하였다. “請復昭陵” 소는 연산군 1년(1495), 선생이 忠淸道 都事로 재직하던 때의 일이고, “魯山君立後 啓請”은 成宗 21년(1490), 선생이 經筵에 入侍할 때의 일이었다.

2. 師友關係

선생의 연보와 실기 등에 나타나는 스승 및 義氣 相通하던 교우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점필재의 문인인 金宏弼, 鄭汝昌을 필두로 元昊, 成聘壽, 李深遠, 姜渾, 南孝溫, 兪好仁, 曹偉 등외에 20여명이 보이는데, 그중에 선생이 27세(1490)되던 3월에 ‘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리고, 그 해 9월에 秋江南孝溫과 함께 술을 가지고 당시 삼각산에 있던 雪岑僧 梅月堂 金悅卿을 찾아가서 사람을 괴하여 밤을 새워 談笑하다가 마침내 백운대에 오르고, 도봉산에 이르러 5일만에 헤어졌다는 대문이 심상찮게 보이며, 道學的으로는 鄭汝昌과 가장 많이 교유한 듯하며, 文學적으로는 南秋江과 사귄적이 많이 나타난다.

3. 學問과 文章

麗末 안향, 백이정, 정몽주로부터 수용되기 시작한 性理學이 약 2세기를 지난 1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아직 《朱子家禮》를 실행하고 《小學》을 체득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곧 麗末 이래의 詞章學의 通弊를 배척하고 性理學을 보급시키려는 노력이 국가와 士林에 의하여 투입되었지만, 그 발전속도는 매우 완만하여 성종조에 이르러서도, 性理學을 전담하는 大家는 나타나지 않았다. 점필재를 비롯한 대개의 士林派에 있어서

7) 《淸選考》 九 贈諡.

도 經學과 詞章이 함께 존중되고 있었다. 그것은 ‘文與道 不相離’라는 相關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한 原理적인 면도 크겠지마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科擧文의 출제경향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生員進士試 및 文科考試科目의 편성에 있어서 文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므로 靑雲에 뜻을 두는 자는 어느 流派를 막론하고 詞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당시 士林의 宗匠으로 추앙 받던 김종직도

經術을 공부하는 학자는 문장이 劣等하고 문장을 다루는 학자는 經術에 어둡다는 세간의 말이 있으나, 내가 살펴본 견해는 그렇지 않다. 文章이라는 것이 經術에서 나왔으니, 경술은 곧 문장의 뿌리이다. 詩書六藝가 다 經術이요, 詩書六藝之文이 곧 문장인 것이다.⁸⁾

라 하여 양자의 不可分性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김종직의 道文一體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문도들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굉필과 정여창 등과 지리산 들어가서 3년동안 五經과 性理學을 연구하여 통달하였다고 하나, 김굉필은 평생에 <小學>을 좋아했다고 하며 정여창 역시 經史에 통달하고 力行實踐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性理學에 대한 著述은 크게 남아 있지 않다. 이는 ‘史禍’의 탓도 있겠으나, 그래도 詞章文이 많이 남아 전하고 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탁영 선생은 道學보다 文章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修己하는 爲己之學과 治人하는 爲人之學으로 양분한다면 선생은 後者편이 우세하다. 그는 性理學 자체에 침잠하지 않고 治人을 지향하는 일대 文章家임을 알 수 있으니, 그가 文科 覆試에서 ‘中興策’으로 제 1인으로 뽑혔을 때, 당대의 문병을 한 손에 쥐고 있던 考官 徐四佳 선생께서

今榜壯元金某 必非常人也 聽其言 森嚴如秋霜 見其文 汪洋如大海 吾爲朝廷得人矣⁹⁾

8) 金宗直：《古畢齋文集》一〈尹先生祥詩集序〉.

9) <濯纓年譜>上. 先生 23세 條.

라고 하였으며, 또한 선생 자신도

若夫詞章特末矣 然 有道者必有言 言之精而有以感發乎人者 爲詩則詞章 亦非與道背馳者也¹⁰⁾

라고 하였으니 이는 분명 선생의 道文一體觀이라 할 수 있다.

道學에 대한 선생의 관심사를 살펴보면, 그는 점필재가 의발을 전수할 수제자로 지목되어 있으며, 士林의 중심인물인만큼 심든 좋든 性理學을 떠나서 존립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陳賀使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禮部員外郎 程愈가 찬술한 《小學集說》을 들여와서 인쇄하여 中外에 반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선생은 鄉村教化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바이다 性敎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가 晉州牧의 教授로 있을 때 독서의 차순을 朱子の 成規에 따라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易經, 春秋 등의 순서로서 과업을 진행한 것도 역시 道學자의 처사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생의 학문적 바탕은 道文一體이나 道보다 文이 성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實錄들에 나타나 있다.¹¹⁾

4. 時 代

선생이 생존하던 世祖 10년(1464)에서 燕山君 4년(1498) 사이는 朝鮮前期 政治史에 있어서 큰 變革을 두 번이나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激動을 겪었다. 세조의 골육간의 왕위 찬탈과, 稀代의 폭군 연산군의 폐위와 中宗反正은 여기에서 새삼스래 기론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는다.

세조 1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李施愛의 亂, 南怡의 獄事와 成宗의 즉위 등이 있었으며, 한편 李朝 건국 이래 집권 勳舊勢力 들은 그동안 一黨獨裁를 강행함에 장애세력이 없던 차에 성종조에 들어서면서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治世理念으로 의식화된 士林派의 등장은 역사의 思

10) 《濯纓集》 五〈題權睡軒關東錄後〉

11) 李秉然; 《濯纓全集》 解題 參考.

潮를 바꿀 일대 변혁의 漸進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조선의 운명을 기울게 하는 징조였다. 연이어 일어나는 史禍와 士禍는 色目黨爭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복수의 원한은 자손대대로 이어져 不俱戴天의 원수를 맺게 하였다.

선생이 속해 있던 士林派는 대개 새 왕조에 臣事하기를 거부한 인물 또는 그 후손들로서 초기에는 구체적인 조직성을 갖지 못한 채, 향리에 은거하여 학문의 탐구에 침잠하던 학자군이 었다. 그러나 성리학의 탐구는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학문 자체가 설정한 이상의 실현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촌의 학자군인 사림들도 정계의 진출을 도외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성리학의 이념 위에 건국된 조선 왕조 자체도 그 建國理念의 구현을 위하여는 성리학의 보급과 심화향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국가와 士林 양측으로부터의 요구가 사람과 형성의 必然性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金宗直의 등장은 이같은 상황 변화를 加速化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세조 5년(1459) 武年文科에 급제하여 중앙관서에 진출한 이래, 오래 계속한 관직생활 속에서도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특히 10년이 넘는 外官職 생활과 服喪期間은 후진교육을 위한 가장 값진 시기였다. 咸陽郡守, 善山府使 재임기간과 父喪 중 밀양에서 廬墓살이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의 동·하생으로서에는 앞에서 탁영 선생의 師友관계를 언급할 때 열거한 분들이 대개 여기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점필제의 문인은 약 60 여명이 되며, 영남지방의 출신에 못지 않게 기호지방의 출신도 많다고 하며, 그가 京官職으로 복귀할 때는 이미 文科 급제를 통하여 관계에 진출한 이도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성종 16년(1485) 이후에 집중적인 진출을 나타내었으므로 士林派의 형성을 대략 이때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직을 중심으로 하는 士林派들은 주로 言官에 재직중인 年少氣銳들로서, 그들은 현실에 대응하는 의식이나 자세면에서도 기존세력인 훈구파들과는 다른 성향을 띠고 있었다. 훈구파가 현실을 고수하고 그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데 반하여 사림과 신진들은 훈구파가 이룩해 놓은 기존의 제도 내지 질서와 현상을 과감히 개혁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문종비인 顯德王后의 소릉을 복위하자는 주장이나 魯山君의 奉祀孫을 이어주자는 주장 등은 어떤 意味에서는 세조의 正統性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당시로서는 금기되어 있던 일이었다.

사림과의 이러한 言論活動은 성종의 재위시에는 그의 비호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으나 연산군의 治下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사림과의 언론에 위축되어오던 훈구파는 연산군과 밀착되면서부터 성종 조에서는 그런대로 용납되었던 문제들을 새로 사건화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사림과 타도의 가장 실정적인 무기를 포착하게 된 것은 탁영이 史草에 실은 점필재의 弔義帝文이 었다. 義帝, 즉 楚懷王 孫心은 곧 단종을, 西楚霸王 項籍은 곧 세조를 각각 寓意했음이라 하여 마침내 戊午史禍가 터지고 말았다. 그들은 ‘大逆’, ‘亂言切害’, ‘亂言’, ‘知亂言不告’, ‘朋黨’ 등의 죄목으로 각기 凌遲處死, 斬, 流, 遠方付處 등의 형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權景裕, 權五福 등과 함께 선생이 凌遲處死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²⁾

5. 《濯纓集》 構成

당시 사림과의 遺稿들이 대개 온전히 남아 있을 수가 없었지만 선생의 경우는 더욱 심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의 遺稿收拾過程을 거쳐서 文集 8권과 同續編과 年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1에는 賦 6수와 雜著 8수로 되어 있으며, 특히 잡저 중에는 <書六絃背>와 <書五絃背>란 글이 있어서, 선생께서 성종 21년(1490)에 직접 만드셨다는 六絃琴이 아직도 남아 전하여서 우리 나라 最古를 기록하게 된 연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12) 李秉然; 《濯纓全集》 解題 引用.

권 2에는 文, 書, 跋 각 1수와 序 8수가 전하는데, 그중 주목케 하는 것은 <書唐屏>이란 글이다. 이는 병풍을 두고 지은 글이라, 선생의 愛玩 내지는 藝術品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 글은 文體上으로는 雜著 편에 넣어야 할 글인데, 아마 분량 또는 편집의 편의상 여기에 편집한 듯하고, 나머지 7수는 인사에 관한 것으로, 體裁를 따른 글들이다.

권 3에는 記 10수가 실렸는데, 이는 모두 營造物에 관한 것으로, 標準 文體에 속하는 글들이다.

권 4에는 辭 2수, 祭文 7수, 墓碣 1수, 銘 7수가 실려 있다. 이 銘 7수는 書案, 書架, 琴架, 短檠, 水精盞, 五絃琴, 그리고 <管處士墓誌銘>도 여기에 실려 있다. 선생의 事物에 대한 뛰어난 造詣는 물론이거와 애착심도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권 5에는 策, 錄, 墓誌, 題가 각 1수와 碣銘 2수가 실려 있는데, <續頭流錄>은 紀行錄이다.

권 5에는 詞 8수와 詩 33수와 疏 4수와 筭 10수가 실려 있는데, 그중에는 額文, 祝文, 祭文도 섞여 있다. 그리고 시 33수는 동시대의 다른 문집들에 비하여 보면, 詩가 두드러지게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는 뛰어난 文章家임을 알 수 있다.

권 7에는 疏 2수, 啓 2수, 議, 教旨, 諡狀, 跋이 각각 1수씩 실려 있는데 이는 아마도 후에 발견된 遺稿들을 첨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권 8의 別附와 續集 附錄에는 20수의, 선생에 대한 타인의 작품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선생의 年譜와 全集跋文으로 짜여져 있다. 이는 참으로 보기 드문 文章家 文集이라 할 수 있다.

Ⅲ. 作品 分析

1. 文體的 屬性

〈管處士 墓誌銘〉은 假文에 속하는 假墓誌銘이다.

假文이란 實文¹³⁾에 대칭되고, 實用文과도 대칭되는 文藝文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문의 元觀念은 物件 내지 物件事이다. 이는 漢字文化圈 특유의 擬人的 필법으로 쓰여지는 작품으로 西歐式 寓話(fable)의 擬人法으로 理解해서는 안된다. 寓話의 元觀念은 인간 내지는 人間事이지만, 가문의 元觀念은 붓, 엮전 등과 같은 인간 생활에 긴요한 물건의 성질, 쓰임새, 또는 생김새 들이다. 그러므로 가문의 특성은

첫째, 가문의 主體는 반드시 事物이라야 한다. 사람은 가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가분이 아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인간 사를 다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주체로 선정된 사물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라야 한다. 따라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작용하는 방향은 반대로 구성된다.

둘째, 가문의 문체는 어떤 실용문의 문체를 모방한다. 모방할 수 있는 실용문의 문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가문의 종류는 假傳을 위시하여 假記, 假誌, 假序, 假史, 假說, 假誥, 假書, 假頌, 假墓誌銘, 假祭文, 假獄案, 假訟文 등 13 종이다. 그리고 실용문을 模戲¹⁴⁾하는 면에서는 패로디(parody)와 비슷하다. 가문은 때로는 진지하여 가끔 崇高

13) 實文: 孔丘傳을 지었다고 하면, 이는 공자라는 실제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實傳이 되고, 實在하지 않은 상상의 인물의 이름을 孔方이라고 지어서, 그의 일생을 架構한 글을 써서 孔方傳이라고 한다면, 이는 假想文 즉 小說이 되고, 돈 즉 엮전의 성질과 그 쓰임새에 맞추어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그리는 글을 쓰고, 그 모양새에 빗대어서 姓名을 지어서 孔方傳이라고 하면, 이는 假文이 되는 것이다.

14) 模倣은 반드시 웃음을 동반하게 되므로 이를 模戲라고 압축하였다.

美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찮은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셋째, 가문의 내용 및 사건 구성에는 여러 가지 故事나 이미 알려진 지식이 동원 된다. 이때 기존의 지식은 그 사건의 時間이나 空間의 합리성은 완전히 무시되어도 관계가 없고, 다만 노리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 특성만 부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수십 가지의 별개의 사건을 공통성 하나로 하나의 작품 줄거리로 엮게 되는데, 이를 가문의 編綴性이라 한다.

네째, 가문은 골계성을 수반한다. 교묘한 공통적 특성을 찾아 엮는 데는 윗트가 필요하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바보스런 해학도 있으며, 毛學士(붓)을 부르는데, 洵泓(벼루), 陳玄(먹), 楮先生(종이)이 한꺼번에 대령해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등에서는 아이러니컬한 냉소도 나올 법하다. 따라서 대개의 가문은 골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 〈管處士墓誌銘〉도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문의 일종이며, 그 下位概念으로서는 지금까지 한편 밖에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假墓誌銘이다.

묘지명이란 본래 죽은 사람의 행적을 먼저 산문으로 길게 자세하게 쓰고, 마지막에 일생의 공적을 압축하여 운문으로 짧게 칭송한 글을 금석에 새겨서, 묘앞 석 자쯤 되는 곳에 묻어둠으로써, 먼 훗날 산천의 형질이 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찾고자 하는 후손으로 하여금 언재든지 확인할 수 있겠끔 대비하는 것이다.

字意 : 管(붓; 대통에 끼웠으므로) + 處士(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 墓(무덤) + 誌(행적을 쓴 산문기록) + 銘(공적을 압축한 운문을 새김)이란 뜻이 된다. 그런데 誌와 銘은 본래는 각각 독자의 문체였으나 묘지명의 경우에는 합치는 것이 편리하므로 생긴 것이다. 이 때 중심이 되는 글은 銘이다.

文體의 形成 : 〈文體 明辨〉의 해설을 보면

按誌者記也 銘者名也 古之人有德善 可名於世 沒則後人爲之鑄器以銘 而俾傳於無窮……至漢杜子夏 始勒文墓側 遂有墓誌 後人因之 蓋於葬時 述其人之世系 名

字 爵 里 行 治 壽 年 卒 葬 年 月 與 其 子 孫 之 大 略 勒 石 加 蓋 埋 於 壙 前 三 尺 之 地 以 爲 移 時 陵 谷 變 遷 之 防 而 謂 之 誌 銘¹⁵⁾……

이와 같이 조상의 무덤을 길이 보존하고, 그 공덕을 길이 찬양하고자 하는 엄숙한 글인 데 비하여 <관찬사 묘지명>은 달아 못쓰게 된 붓의 무덤을 만들고 사람처럼 묘지명을 쓴다고 온갖 故事들을 엮어서 골계를 부리고 있다.

2. 創作 動機

작자의 창작동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작자의 愛物心을 들 수 있다. 선생은 직접 六絃琴을 만든 내력이 背書에 적혀 있다. 거문고 즉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으로써 사람의 성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六絃琴을 만들게 된 것은

嘗聞晉以七絃 送高句麗 國相王山岳增損其制 作六絃 今用之 傳至新羅¹⁶⁾

라 하였고, 또 육현금의 한 줄은 기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오현금을 만들어서 집에다 두고 육현금은 서당에다 두었는데 그 이유는 밖으로는 현세를 따르고 안으로는 고풍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생의 物性에 대한 깊은 관찰과 愛物의 정성을 살필 수 있는 실마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문집에는 器物에 대한 글이 많은데, 특히 거문고에 관한 글이 4수, 책상에 관한 글이 2수, 등잔, 병풍, 술잔, 붓에 관한 글이 각각 1 수씩, 도합 10수가 되는데 당시 다른 문집들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많은 편에 속한다.

둘째, 그는 18세에 그의 스승 김종직에게서 수학할 때, 선생을 지목하여 자기의 衣鉢을 전수할 자라 하고, 또 뒷날에 문병은 그대에게 돌아 갈 것이라 하고 그리고

15) 徐師曾 : <文體明辨> 序說 長安出版社, pp. 148-150.

16) 金駟孫 : <濯纓全集> 권 1 雜著 <書六絃背>, <書五絃背>.

朝廷之上文 爲先須多讀昌黎集 先生嘗云 余十八歲讀韓文而喜之 手不停披 口不絕誦 至千餘遍 然後於文有進 先生於著述 立草千百言 奔放雄博 沛乎無凝滯 見者望洋 華人稱之曰 此東國之韓昌黎也¹⁷⁾

당시 조정의 뛰어난 문장들이 반드시 한유의 글을 많이 읽었으며,…… 내가 18세에 한유의 문장을 읽길 잘 좋아하여 손에는 책피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외우기를 끊이지 않아, 천번도 더 읽은 연후에야 문장에 진보가 있었다. 선생이 저술한 산문 초안들은 달리듯이 웅박하고 솔아지듯 막힌 데가 없어서 끝없이 넓드라. 중국인이 일컬기를 이는 동국의 한유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생께서 한유의 문장을 무척 좋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東洋 假文의 시초요, 古文復古運動을 성공시키는 데 실천적 도법을 보인 문장이며, 천하의 문인들로 하여금 한번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¹⁸⁾고하는 滑稽의 壓卷인 〈毛穎傳〉을 선생은 몇 번이나 읽었을까!

이 〈모영전〉은 붓의 생전을 그린 가문의 압권인 데 비하여 선생의 〈관처사 묘지명〉은 붓의 사후를 그린 명작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찌면 〈관처사묘지명〉은 한유의 〈모영전〉에 짝을 맞춘 속편인지도 모른다.

3. 作品의 要約

가) 處士의 名은 述, 字는 述古이며, 본성은 毛씨이다. 毛刺使, 管城侯, 毛元銳 등은 모두 그의 선조이다.

나) 그의 鼻祖는 書契 시대에 伏羲씨가 八卦를 그을 때 이를 도왔고, 孔子를 따라 〈春秋〉를 쓰다가 絶筆을 당하였다. 그 후 6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조상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다) 秦始皇 때 蒙장군의 추천으로 管城에 봉해졌다고 하나, 秦나라는 郡縣制를 실시하였으니 틀린 말이다. 李斯를 따라 隸書를 전공함으로써 盧生

17) 〈濯纓全集〉 年譜上: 先生十八歲 條.

18) 柳宗元: 〈讀韓愈所作毛穎傳〉

의 화를 면하였다고 한다.

라) 漢末에는 금옥으로 붓을 사 모으고, 상아와 珠璧으로 장식하는 사치 풍조가 일어나서 거이 폐망할 뻔 했으나 기억력이 좋아서 위기를 면하였다.

마) 魏, 晉시대에 王右軍이 毛씨로 인하여서 著名해졌으나 그의 사치 풍조를 싫어하여 경문을 지어서 이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大小 歐陽씨가 이를 고치지 않았다.

바) 梁의 簡文帝는 毛를 위하여 특별히 牀을 마련하였고, 湘東王이 著書할 때 毛를 3등분으로 나누어 벼슬을 주고, 忠, 孝, 德行과 문장을 장려하니 모씨가 대대로 斯文을 주관하게 되었다.

사) 唐代에 毛花는 李白과 정신적인 교제를 하였으나, 艷情을 좋아하여 女色이라하면 싫어 하는 것이 없었다. 일찌기 이백을 따라 便殿에서 받들어 모실 때, 玄宗이 궁녀 10인을 불러 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받들고 있는 비루가 얼자 입으로 불어서 녹이게 하니 宮女들이 분부대로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王勃과 함께 농사도 지었다. 모씨가 세상에서 일을 한 지 오래이나 역대 君臣들이 은혜에 야박하므로 인하여, 그가 젊어서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하여도 늙게 되면 문득 하수구에 버림을 당하니, 僧 智永이가 비로소 자비심을 베풀어 이를 거두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아) 모씨의 종족은 변방 출신이 많다. 犬戎, 羔羊, 虎豹, 猩猩, 鷄鴨, 狐狸, 鼠兔가 대낮에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해서 점차 순화되었고, 이들이 중국에 들어와서는 모두 모씨가 되었다. 그들은 덮어 놓고 남을 따르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이 착하든 어리석든 재주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았다. 비록 奴隸라 할지라도 글을 알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니, 그가 학식은 있으나 죽대가 없어서 남에게 부림을 당하므로 사람들이 이를 천시하여 尖頭奴라고 불렀다.

자) 元魏시대에 古弼이란 자는 머리가 뽕죽하므로 해서 이를 筆公이라 불려지기도 하였다. 한 번은 佛狸가 사냥을 나가는데, 弱馬를 주었더니 불

리가 대노하여 “尖頭奴가 감히 나를 속이느냐? 도성에 돌아가면 이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였는데, 결국에는 그가 곧다고 인정되어 죽이지 않았고, 楊文德의 금을 받았으나 罪주지 않았고, 불리가 죽자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으나, 元魏가 漢나라 법이 참혹함을 싫어 하므로 그 자손들은 온전하였다.

차) 唐太宗이 무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 하였으나 虞世南과 사이가 좋아서 그와 함께 上監전에 이르렀고, 또 柳公權과 함께 直諫을 잘하였다. 唐 나라 말기에 武風이 일어나더니, 五季 때에는 帝王들이 武風을 쓰지 않은 자가 없었다.

카) 梁나라 때에는 中原의 난리를 피하여 南唐에서 벼슬을 하다가 李昇 杲이 죽보를 만들면서 吳王을 조상으로 꾸미는 것을 본받아, 管仲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다가, 이번에는 狄靑이가 狄梁公이 자기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매우 부끄러워 하므로 그의 친구 陳玄이가 해명하기를 倉씨, 庫씨, 司馬씨, 司空씨가 모두 관직으로써 姓氏를 삼았는데, 자내의 조상은 管城에 封한 바가 있는데 무엇을 부끄러워 하는가? 하였다. 이에 管述古가 기뻐하였다.

타) 宋나라의 諸賢들은 사람을 접하기를 싫어 하였으나 管씨만은 맞이 하였고,…… 특히 司馬光은 그를 숭봉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資治通鑑》을 저술하는데, 기록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 공은 만세에 남아 진할 것이다.

蘇東坡가 기롱한 바 ‘肥皮饅頭’나 朱晦翁이 친근한 바 ‘대추씨’(囊心) 같은 자는 다 그의 소생이 아니다. 말세의 匠人들이 그를 더욱 천시하였으나 오직 叔淨家에 있어서는 孔明을 사모하였고, 소동파는 특히 諸葛所生을 귀한 것이라고 감탄하였다.

관씨는 평소애 움직이기를 좋아 하였으나 움직이면 수명이 단축되고, 가만히 있으면 약간은 연장되지만 그것도 오래 있으면 병이 생겼다. 소동파가 李建中의 方文을 배워서 水銀 한 돈중을 끓여서 풀에 섞어서 관씨에

게 먹었더니 神效하게 나왔다.

파) 管子가 동방에 와서는 그 자손의 성씨가 세상을 따라 같지 않았고, 좋아하고 숭상함도 또한 같지 않았다.

하) 돼지 족속의 후예가 몽고 大長公主의 饈夫가 되어 술과 도마를 가지고 고려에 왔는데, 그의 7대손인 亥生이란 자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걸음이 높고 말이 커서 時用에 맞지 않았다. 때문에 세상에서 그와 함께 하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神童인 朴訥이 그와 함께 노닐어서 기이한 행적을 남겼다.

거) 貂冠족은 귀하고 羔冠족은 천하고 卯君족은 중간인데, 모두 管子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나온 곳은 알지 못한다. <鷄林誌>에는 송나라 錢穆父가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黃豪를 데리고 갔더니 黃太使가 오랑캐의 성이 자기와 같은 것을 꺼려서 猩猩족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처음부터 성이 黃이 아니라는 것과, 고려에는 성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혹자는 이름을 생이라고도 하는데, 갈색옷을 입은 데다가 생과 성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도 하나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너) 述古는 黃冠족인데, 스스로 도복을 입고 외모가 깨끗한 것을 사모하였다. 그의 父名은 尾生인데, 경솔하고 품행이 없으므로 부르기를 黃狂子라 하였다. 여러 번 공훈을 세워 竹山君에 봉하여지고, 마침내 의론을 받들어 “因人成事曰襄 貪以敗官曰墨”이라 하고, 마침내 襄墨公이라 謚號하였다. 述古의 慧眼으로 某家の 禮를 원용하여 이 수모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부득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노예의 종족으로서 累世에 顯貴하게 되어 기세를 믿고, 해학과 기롱의 말로 조롱하는 편지나 글을 많이 쓰다가 일조에 ‘焚書坑儒之禍’가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마침내 벼슬을 그만두고 청빈한 선비를 찾아서 함께 노닐었다……내가 관씨가 가난하여도 탐욕하지 아니함을 알고, 누우쳐서 襄墨에 대하여 송사하지 않았다. 그 형제의 이름에 有心과 無心이 있는데, 無心이 곧 述古이다.

더) 술고의 위인이 침묵하나 知己를 만나 가슴 속을 털어놓으면, 그 날카롭기가 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평소에 肺病이 있어서 물을 마시고 목욕하기를 좋아하여, 마음 놓고 놀 때면, 마치 수영하는 아이들처럼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 속을 출몰하여 쉴새가 없었다. 그리고 문장을 지을 때면 도도히 흘러서 마르는 법이 없었다. 날씨가 추울 때에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불룩하므로, 내가 凍死할까봐 겁이 나서 서둘러 화로불에 쪼였더니 그만 寒熱이 교차되어 땀을 흘리지 못하고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하였다. 아이가 받들어서 머리를 감겼더니, 그만 아이들 머리처럼 되어서 빗질을 할 수가 없었다.

러) 이에 그의 옛일을 생각하니, 그는 항상 세상을 근심함이 언어와 행동에 나타나더니, 귀밑머리가 일찌기 시들어지니 슬프다. 이에 竹皮冠을 시우고 紙衾으로 殮襲을 하였는데, 그것은 평소 그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의 족속들은 많으나 각자 그 주인에게 얽매여서 왕래하지 못하였고, 형제 5인도 화목하지 못하였다. 평소에 왕래하던 이른바 楮紙白, 易玄光도 모른 척하였고 石虛中은 완고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이 족속들은 上壽者가 겨우 1년을 사는 데 述古는 겨우 반년을 살았다. 造物者가 어찌 이들에게만 야박한가?

머) 술고는 처자가 없어서, 屍體가 상에 놓여 있어도 거두는 사람이 없으므로 더욱 슬프다. 그래서 나와 姜木溪가 상의하여 朱文忠, 陶靖節, 貞曜先生의 고사에 따라 文悼處士라 私諡하고, 녹봉을 털어서 棺을 사서 讀書堂 북쪽 언덕에 묻었다. 술고가 평소에 나를 보고 탄식하기를 智永은 무덤은 간들어 주었으나 誌가 없었고, 韓愈는 傳을 지어 주었으나 銘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銘과 誌를 지어 함께 묻어서 弔慰한다. 銘에 이르기를

“해는 癸丑, 달은 冬至, 용산 언덕, 讀書堂 뒷터에 한줌 흙이여! 述古를 여기에 묻노라”

4. 作品 評議

위와 같이 19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전문의 분량은 〈愁城誌〉보다 길지마는 〈수성지〉처럼 假文小說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敍事적인 이야기 부분은 4분지 1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序頭 人定 記述에서 조상에 관한 기록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설적 구성이 아니라고 해서 가문의 가치가 감소될 수는 없다. 〈心史〉나 〈天君演義〉나 〈天君實錄〉 등은 중편소설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가문적 滑稽性에 있어서는 이 〈관처사 묘지명〉에 미치지 못한다.

韓愈의 〈모영전〉 이래 文房四友에 관한 假文은 가끔 나타난다. 麗末 李詹의 〈楮生傳〉을 비롯하여 南有容의 〈毛穎傳補〉와 李爽行의 陳玄傳, 趙載道の 陳玄傳, 魏伯珪의 楮白傳, 陳玄傳, 毛元鋒傳, 石埴中傳 등과 李德懋의 〈官子虛傳〉, 釋應允의 硯滴傳, 韓星履의 〈管城子傳〉 및 崔鉉達의 〈硯滴傳〉 등이 발견되어 있다. 獨創性에 있어서는 〈연직전〉이 우수하고 文房四友를 각각 독립한 傳으로 창작한 점에서는 魏伯珪의 四種傳을 따를 수 없으나 한 작품 안에 四友를 종합한 면에서는 이 〈관처사묘지명〉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伏羲씨로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붓과 관련된 고사들의 인용이 매우 참신하다. 대개의 문방사우에 별명들은 管城子, 會稽 楮先生, 陳玄, 陶泓 등으로 일컫는데 비하여 楮紙白, 易玄光, 石虛中 등의 용어도 참신하러니와 편철하는 솜씨 또한 기지가 있다.

IV.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濯纓 金駟孫은, 조선 초기 도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金宗直으로부터 道와 文을 함께 전수받았으나 탁영의 학

문은 道學보다가 文章이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시의 문집들은 대개 詩가 거의 반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탁영의 8권이나 되는 文集 속에 詩는 불과 33 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탁영의 학문이 절대적으로 산문 위주로 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탁영은 18세 때에 그의 스승 沾필재로부터 韓愈의 문장을 공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昌黎文集>을 천 번 이상 읽었다고 한다. 그가 이 <管處士 墓誌銘>을 짓게 된 動機가 바로 한유의 <毛穎傳>에 감동을 받은 것이 가장 큰 動機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毛穎傳>이 붓의 생전에 관한 글이라면 <管處士 墓誌銘>은 붓의 사후에 관한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動機는 그의 愛物思想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문장 속이 10편이나 되는, 그가 평소에 愛用하던 器物에 대하여 지은 글을 보고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언제나 物性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疑視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까지 필자가 발견한 假文의 종류는 13종이고, 작품은 100여편이 되지만 假墓誌銘은 이 <管處士 墓誌銘> 한 편 뿐이다. 文房四友에 관한 가문이 李詹의 <楮生傳>을 위시하여 13편 정도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四友를 한 편에 종합한 작품으로서 이 <管處士 墓誌銘>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